

Hanmaum Library Story

한마음도서관 이야기

2018년 통권

20



여러분의 꿈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어디에나 존재하는,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소통의 공간 ‘열린 행복 도서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걸 맞는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립된 한마음도서관은 올해로 개관 1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에 힘쓰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쉬 없이 달려왔습니다. **2018년 또한 여러 사업을 통해 한걸음 더 성장한 소중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장서 12만권을 확충한 2016년 이래 도서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장서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과의 공동보존서고 협약 체결로 확보된 공간에 고품질의 정보자료와 이용자 희망도서를 적극 비치하였고, 도서 활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한마음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책두레)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민에게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노년층을 위한 주역과 사서삼경 강좌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길 위의 인문학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한·고전인문학당**을 신규사업으로서 운영하여, 지역민들의 심도 있는 인문독서 토론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곳곳의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확대 서비스로 찾아

가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어디에나 존재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행복 도서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빌게이츠는“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동네 도서관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도서관에서 키워집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도서관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은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함께 걸으며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도서관은 개혁적이어야 하며, 사서는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현대의 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함을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게 휴식하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마음도서관은 2019년 이용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려 합니다.** 1층 내부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 and 운영 다변화를 통해 다소 딱딱했던 분위기에서 거실 같은 편안한 공간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시도하려 합니다. 또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U-도서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SNS 기반의 **정보알리미 서비스**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흐름에 맞춰 한마음도서관은 더욱 진일보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보·문화·교육의 요람으로서,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용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한마음도서관이야기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ibrary.geochang.go.kr



Contents

04 공모사업
길 위의 인문학

06 신규사업
한심인문고전학당

08 한마음갤러리
독서문화프로그램 1

10 한마음갤러리
독서문화프로그램 2

12 직원 글마당
도서관, 너의 의미 - 김안나

14 어린이·봉사자 글마당

16 도서 대출베스트

18 책! 책! 책!
책두레[작은도서관], 책이음, 책바다

20 기획 : 2019년 생활밀착형 SOC 사업
리모델링 및 북카페 + U도서관

22 도서관 뉴스
도서관 이용환경개선, 공동보존서고 협정체결, 책 나눔 행복더하기, 맘(MOM)편한 행복도서관

23 회원가입 안내

거창한 인문학, 자연愛 美치다

지역을 담은 도서관 주민을 담은 인문학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우리 동네 이웃들, 보통 사람들의 삶을 인문학적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기획하여 현재를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문학의 소재로 다루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숨겨진 스토리를 재발견해내고, 다시 지역 인문콘텐츠로 생산해내는 일은 익숙한 듯, 낯설고 흥미롭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숨겨진 인문활동가를 발굴하여 그들이 지닌 열정과 능력을 마음껏 누린 재발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인문정책은 지역민의 삶과 당면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1 차시



차(茶)의 탐미

일상에 담긴 아름다움을 엿보다(권미리 강사)

강 연 1 : 한국茶 vs 일본茶 문화의 흐름

강 연 2 : 역사속의 대표 차인과 현대茶 문화의 중흥인물 만나기

탐 방 : 하동 화개면 (쌍계사내 진감국사탑, 하동야생차박물관, 차시배지)





2 차시

공감클래식 (이혜명 강사)

강 연 1 : 바흐 vs 헨델

강 연 2 : 모차르트, 진보의 힘

탐 방 : '2018 전주비바체실내
 악페스티벌' 관람(전주한벽문화관)

3 차시

거창의 야생화와 자연생태이야기

강 연 1 : 숲에서 만나는 풀꽃나무꽃 이야기

강 연 2 : 거창의 야생화와 자연생태 이야기

탐 방 : 금원산, 수승대, 신원국화전시회



후속 모임

거창한 인문학, 자연愛 美치다 (이혜명 강사)





한·고전인문학당

고전문학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책임입니다.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들여다보는 최고의 책, 바로 고전입니다.

작가의 생애와 작품경향, 문학적 위치도 함께 조명해보고 작품 속에 그려진 시대상황과 예술의 관계도 다양하게 해석해봅니다.

그리스 비극 읽기

- 2,500년 전의 시간 속으로 -

8월 8일부터 시작된 한·고전인문학당 하반기 수업은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등으로 유명한 소포클레스의 비극 7편과 아이스퀼로스의 《아가멤논》,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등 총 9편의 작품으로 진행되었다. 20여 명의 지역민이 참여한 수업은 작품과 관련된 명화, 연극, 영화로 소개를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수업이라서 하루 일과를 끝낸 참여자들에게는 피곤이 밀려드는 시간이었을 것임에도 열기를 식혀야 할 정도로 토론은 끊임이 없이 이어졌다. 특히 운명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오이디푸스나 곱힘이 없던 안티고네, 복수의 화신 엘렉트라,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남편에게 복수했던 메데이아

이야기에서는, 신화적 삶 속에 숨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삶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했던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

명화를 통해 비극을 보는 재미는 남다르다. 책이 주는 상상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재미뿐만 아니라 같은 인물과 이야기도 작가마다 표현이 다른 작품을 통해 상상력을 더욱 자극 받는 재미가 추가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상상한 등장인물과 비교하며 비극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다. 현대적으로 해석한 영화나 연극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들고, 토론은 부드러운 사람을 만들며,

글쓰기는 정확한 인간을 만든다.” - 프란시스 베이컨

2,500년 전에 읽었던 이야기가 현대적 시각으로 수용되어 그에 따라 변모된 말투, 의상, 등장인물의 캐릭터 등은 고전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가치가 있음을 알게 했다. 고전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한·고전인문학당 참여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제시한 뜻밖의 시각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오이디푸스의 운명과 더불어 그의 어머니 이오카스테의 행동을 문제 삼고 하고 고귀한 안티고네와 엘렉트라가 아닌 고집불통 그녀들을 안타까워 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메데이아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의 본성을 끄집어내 고백하는 등 재기발랄하고 반짝이는 시각은 토론 과정을

풍요롭게 했다. 그래서 고전은 읽을수록 맛이 다른 매력에 있는 모양이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외출 준비를 하는데 5분이면 충분했다고 한다. 꾸밈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빨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장으로 나가서 그들과 얘기하고 싶어서라고 한다. 토론하는 문화가 고대 아테네를 성장시킨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다. 이처럼 읽으면 읽을수록 읽고 싶어지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인문학당의 시간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경미 한·고전인문학당 토론리더



2018년 수업

기간: 2018. 3. ~ 12월

장소: 도서관 3층 시청각실

모임: 매월 2회 수요일 오후 19:00~21:00

주제도서: <돈키호테>, <소포클레스 비극>

함께 읽고 독서토론



고전문학

작품 세계로 떠나는

문학기행: 순천박물관, 순천만습지

(순천 10.13)

참여 대상

- 고전문학을 읽고 싶은 분
- 고전문학을 읽고 토론에 갈증을 느끼신 분
-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은 분
- 부담 없는 독서토론을 원하는 분
- 편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 고전문학을 통해 작품을 분석하고 싶은 분

독서문화 프로그램 1



새로운 지식정보를 생성하는 창의적인 공간 또는 다목적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영유아 및 어린이, 청장년, 노년층에 맞는 대상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지역민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제공 및 올해, 13년째 운영 중인 어르신 프로그램 <주역과 사서삼경>은 도서관을 통한 노년생활 영위에 기여한 장수 프로그램으로 입지를 다져 가고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북스타트

영유아기부터 책이 있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며, 아기와 부모가 그림책을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즐거운 프로그램

책꾸러미 - 그림책2권, 가이드북, 선물, 에코백
대상: 8개월 ~ 27개월 영유아와 부모
내용: 독서 및 독후활동, 손유희, 율동, 만들기 등



그림책 놀이터



책 읽어주는 날 (우리말, 일본어, 영어)



책이랑 놀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어린이 동화구연 체험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동화 속 배경에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만져보는 듯한 체험을 하며, 동화를 접하는 새롭고 즐거운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독서흥미를 일으키는 프로그램

대상 : 5 ~ 9세 어린이 (1회 10명 이하)
 프로그램 : 아기돼지삼형제, 신기한 마법텐트 시리즈, 알라딘과 요술램프 등 8개



북아트 책놀이



책놀이 암암



가족과 함께 마음놀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2

성인 대상 프로그램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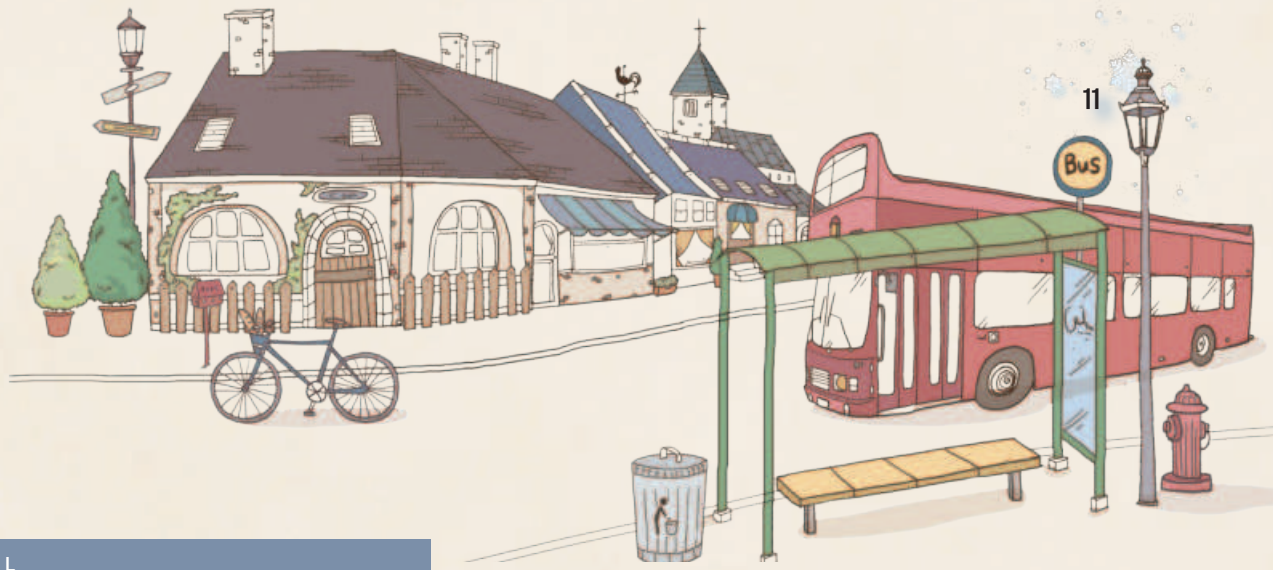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소외된 계층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책을 통한 건강한 정서함양과 친숙한 도서관으로 다가가기 위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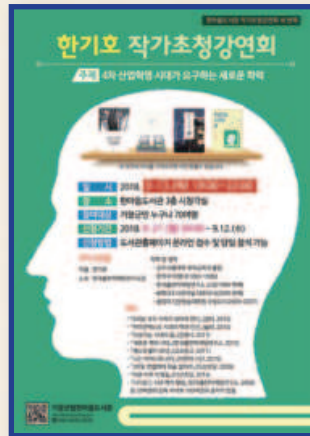
주역과 사서삼경



클래식공감 수업



도서관 행사



작가초청강연회

인문정신 확산과 사회현상에 대한 성찰력 진작 지역민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문학, 역사, 과학, 철학, 예술) 유명 작가를 섭외



‘자수, 꽃을 만나다’ 수강생 작품 전시



책 읽는 마수리 공연



원화 아트그림 전시



인형극 흥부와 방귀쟁이 놀부 (개관연장 야간 프로그램)

도서관, 너의 의미



글. 김안나(어린이실 직원)

김창완과 아이유가 함께 부른 ‘너의 의미’ 라는 노래를 좋아한다.

두 사람의 청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좋고, 코끝을 스치는 시원한 가을바람과 코스모스가 연상되는 가사가 참 좋다.

낙엽이 흩날리는 요즘, 특히 자주 듣곤 한다.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도서관 소식지에 글을 쓰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책과 도서관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에 잠기게 된다.

도서관에 관한 추억은 초등학생이 무렵 도서관에서 책 뒷면에 종이로 된 도서 대출카드를 꽂고, 이름과 반납일자 등을 적고 빌려가던 시절로 시작된다.

이후 ‘책이 더 많이 있는 도서관이 생겼으면...’ ‘하고 항상 바라왔던 학창시절을 거쳐, 장서가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잠시 만족감을 느꼈지만, 졸업 후 거창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큰 도서관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었다.

그런데 2006년,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갖춘 한 마음도서관이 생기게 되어 무척 반가웠고, 이곳에서 운 좋게도 잠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엔 막연히 도서관에서는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우아하게 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도서관에서의 업무는 생각처럼 우아하지만은 않았다.

새로운 도서가 들어오면 지하서고에서 엄청난 양의 책을 분류하고, 분류된 책을 북트럭에 옮겨 다시 자요정리실에서 칩 작업을 하고, 그 뒤 라벨을 붙이고 장서인을 찍는 등 끝없이 반복 작업을 해야 했다.

처음 그런 일을 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 도서관 서가에 배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의 수작업과 전산작업을 거쳐야만 하는지를 몰랐었다.

반복된 작업에 지치기도 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종합자요실과 어린이·모자자요실에 있으면서 도서관 사서와 직원들의 업무를 단편적으로나마 경험해볼 수 있어 재미있었다.

책을 배가하고 관리하는 도서관의 내부업무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이었기에, 기초적인 업무였지만 모든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도서관에 올 때마다 언젠가는 이곳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곤 했었다.

어떤 일에 열망을 가지고 자주 생각하면 언젠

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2년간의 비서실 근무를 마치고 올해 7월부터 도서관 어린이·모자자료실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소설과 에세이 종류의 책만 편식하듯 읽는 독서습관을 가진 나였기에, 그림책과 동화책이 주를 이루는 어린이·모자자료실에서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또한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담당직원으로서 맡은 업무에 능숙해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가지게 되었다.

다행히 같은 자료실에서 2년째 일하고 계시는 노련한 파트너의 도움으로 좋은 그림책을 자주 추천받아 자연스럽게 읽다 보니 단순하지만 교훈이 있는 그림책의 매력에 빠질 수 있었다.

시간을 두고 어린이모자자료실 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 언젠가는 이용자들에게 능숙하게 좋은 책을 추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하는 중이다.

생각해보면 긴 시간동안 여러 부서의 업무를 거쳐 도서관에서 일하게 된 것은 내 마음 한 편에는 품고 있던 희망사항 중 한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니, 요즘 굉장히 행복하다.

그래서 도서관은 나에게 희망사항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보다 긴장하며 업무를 해야 했던 비서실에서 지냈던 몸과 마음의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준 것도 역시 책과 도서관이다.

한마음도서관에서 공공기관에 책을 배달해주는 책배달서비스로 받은 책들을 주말에 읽던 그 소중한 즐거움.

소설 속의 인물들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

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비추어 상상도 하며, 문득 찾아드는 우뚝한 기분을 잊어 보곤 했다.

그래서 도서관은 나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도 함께 준 친구로서의 의미도 있다.

나에게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되어 준 도서관과의 인연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는 것은 쉽지 않기에, 선뭉치럼 다가온 이 기회를 충분히 만끽하며, 도서관의 일원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잘 해 나가고 싶다.

늦가을의 정취가 몹시 풍기는 아름다운 창가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는 이요이의 도서관을 지키고 있다.



어린이 글마당

“

어린이들의 책을 읽는 뒷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합니다. 그 흐릿함에 더하여 감사 편지까지 직접 적어 전해 주었네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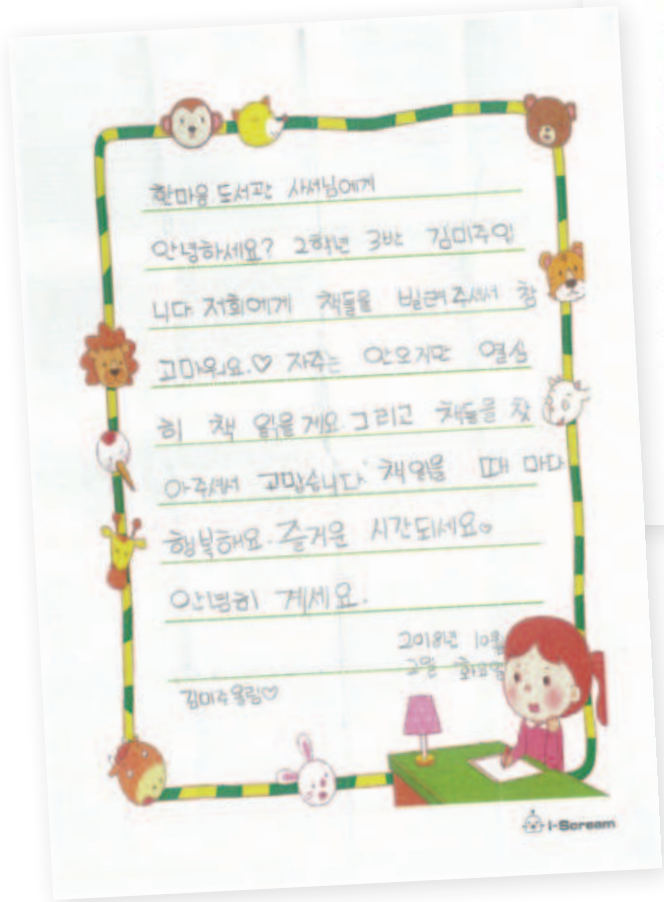
한마음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에 자주 갔던 이서운입니다. 제가 도영여랑 같이 갈 때마다 사탕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찾을 때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에 사서 선생님이 없으셨다면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계셔서 천~만 다행이에요! 다른 도서관에 온 사람들도 친절하 사서 선생님이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그 만큼 선생님 없으시는 안될 사람이에요! 제가 한마음 도서관에 처음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선생님에 너무 좋아요! 선생님은 저를 친척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편안해요. 선생님, 앞으로 계속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한마음도서관은 제일 행복한 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저도 행복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9년 10월 5일 월요일

-서운이울림-





글. 변지영 (독서활동가)

독서활동가 글마당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그 네 번째를 마무리하며...

날이 갈수록 바람이 차가워진다. 이맘때가 되면 나에게는 무리되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한마음도서관의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이다. 어느덧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4년이 되어간다. 독서활동에 막연한 관심이 있었을 때, 한마음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을 했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나에게 맡겨진 활동기관은 노인복지사설이었다. 그곳은 주간보호센터였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셨다. 그래서 내가 책 읽기를 하는 동안, 어르신들이 질문에 대답도 해 주시고, 재밌는 농담도 하시곤 했다. 하지만 어쩔 때 한 번씩 졸다 깨시면 부끄러워하시며, 오히려 더 재미난 책으로 가져오라고 화를 내시기도 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지만, 좋은 경험과 난처한 경험 등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며 일 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해는 첫 해의 경험이 발판이 되어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젤과 커다란 책을 들고 이 병실과 저 병실, 중앙 홀과 끝 홀을 다니며 병실의 분위기를 살핀 후, 어르신들이 보고 싶어 할 여러 가지 책을 읽어드렸던 것이다. 그것은 '진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에 딱 맞는 곳이 여기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이었다. 물론 계속 바뀌는 장소와 서로 다른 성격의 어르신들로 인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 수업시간은 마음 한 편이 정말 따뜻했던 기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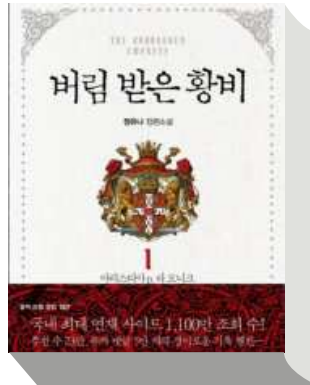
당치가 좀 있으신 어르신이었다. 혼자 앉기도 힘드신 분께서 매주 책이야기를 듣기 위해 나와 계셨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설명에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굳이 밖으로 나오셔서, "힘들어도 인사할라꼬, 마지막이라미..오늘은 끝까지 문뜬겠다."라고 하시며 나와 눈을 맞춰주시고 들어가셨다.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런 보람된 시간을 맞을 때면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바람이 하늘에 닿았을까? 그 다음 해 다양한 기관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작은도서관과 장애인 기관의 일이었다.

매번 낯선 장소, 낯선 대상에 긴장된 시간을 가지지만, 작은 도서관 일에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였다. 면단위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책을 통해 더 재미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것 같다.

비록 짧은 경험이지만, 수업을 하다 보니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어느 기관이든, 그 기관까지 찾아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 담당자들께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신다는 것이다.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 일을 하는 강사들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되고, 항상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처음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올해 맞춤형수업도 몇 번 남지 않았다. 어르신들과 정도 많이 들어 헤어짐이 힘들겠지만, '다음'이라는 막연한 인사로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해야겠다.



버림받은 황비

저자 : 정유나 / 디앤씨미디어

정유나의 로맨스 소설. 사형 집행관의 도끼가 하늘 높이 치켜 올라가는 것을 보며 모니크 후작가의 영예로웠던 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녀는 과거로 돌아와 있다. 다음 대 황후로 자리나 그만을 보며 황후로 살기 위해 감정을 죽여야만 했던 과거가 진저리 쳐지는 아픔으로만 남았을 때, 아리스티아의 곁에는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드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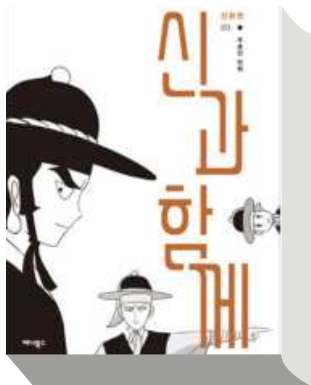


82년생 김지영

저자 : 조남주 / 민음사

여권이 신장된 시대,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라는 조건이 굴레로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여자의 인생을 다룬 <82년생 김지영>은 조용한 고백과 뜨거운 고발로 완성된 새로운 페미니즘 소설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자료로 이루어진 '목소리 소설'이다.

비
문학



신과함께

저자 : 주호민 / 애니북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비리, 둔감해진 도덕성에 기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사람들마다 각자 올바른 일을 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있다. 전통적 '권선징악'이라는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던 이 작품은 그래서 더 선량하게 살아온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바치는 헌사와도 같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저자 : 채사장 / 한빛비즈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전 과정을 마치 하나의 천일야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풀어낸다. 먼저 역사는 직선적 시간관에 의해 설명된다. 이 과정에서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 긴 세계사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단박에 이해된다. 이 거칠고 거대한 흐름을 꿰다보면 세계사는 물론 경제 원리, 정치 이슈, 사회문제들이 한 방에 명쾌히 이해된다.



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 문유석 / 문학동네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를 꿈꾸는 현직 부장판사 문유석이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 전작 <판사유감>을 통해 현직 판사로서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저자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한다. 소년시절부터 현재까지 저자가 보고 겪었던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 있다.



가면산장 살인사건

저자 : 히가시노 게이코 / 재인

탁월한 스토리텔러인 히가시노 게이코는 이 책에서 작중인물의 대사를 통해 독자가 트릭을 눈치챌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간간히 흘리며 독자와의 아슬아슬한 두뇌싸움을 벌인다. 그러면서도 독자를 쉽게 트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않는 채 마지막까지 끌고 간다. 작가와의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클라이맥스까지 쫓아간 독자는 작가의 이러한 악익에 분노와 통쾌함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다



검을 든 꽃

저자 : 은소로 / 연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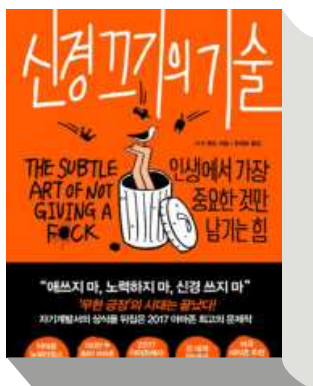
장편로맨스판타지소설. 에키네시아로아즈는 검의 천재였다. '마검'에 물든 자신의 잔인한 운명을 바로 잡기 위해 시간을 되돌리지만 돌아온 지금에서 선불리 마검을 버릴 수도, 아무 것도 모르는 백작 영애로 살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긋지긋한 마검을 버리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 창천의 기사가 되어 또 다른 검을 손에 넣어야 한다. 그녀는 결국,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한, 이상한 성격의 천재 기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저자 : 히가시노 게이코 / 재인

이번 이야기에는 그동안 히가시노 게이코 하면 떠올랐던 살인 사건이나 명탐정 캐릭터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퍼즐을 맞추어 가는 듯한 치밀한 짜임새는 과연 히가시노 게이코의 작품답게 명불허전의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며 감동을 자아내 작가의 고정 독자를 충분히 매료시킨다.



신경 끄기의 기술

저자 : 마크 맨슨 / 갤리온

수많은 선택지와 기회비용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뜻밖의 깨달음을 전한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질 것, 내가 옳다는 확신을 버리고 틀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거절하는 기술을 익힐 것,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숙고할 것. 이렇듯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5가지 가치관을 제시한다



자존감 수업

저자 : 윤홍균 / 심플라이프

자존감 전문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원장이 2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 쓴 책으로,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면의 불화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책! 책! 책!

책이음

책이음 서비스란?

- 책이음 서비스는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자가 하나 이상의 공공도서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공공 도서관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한 후, 책이음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책이음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하실 수 있고, 이용자 본인이 대출 및 반납 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책이음 통합 홈페이지

- 책이음홈페이지 주소 : <http://book.nl.go.kr>
- 책이음 회원은 책이음 홈페이지 가입 후 이용도서관 및 대출중인 도서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책이음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이음 회원등록 : 회원구분에 따라 책이음 회원 등록절차 운영



책두레(상호대차서비스)


책두레 서비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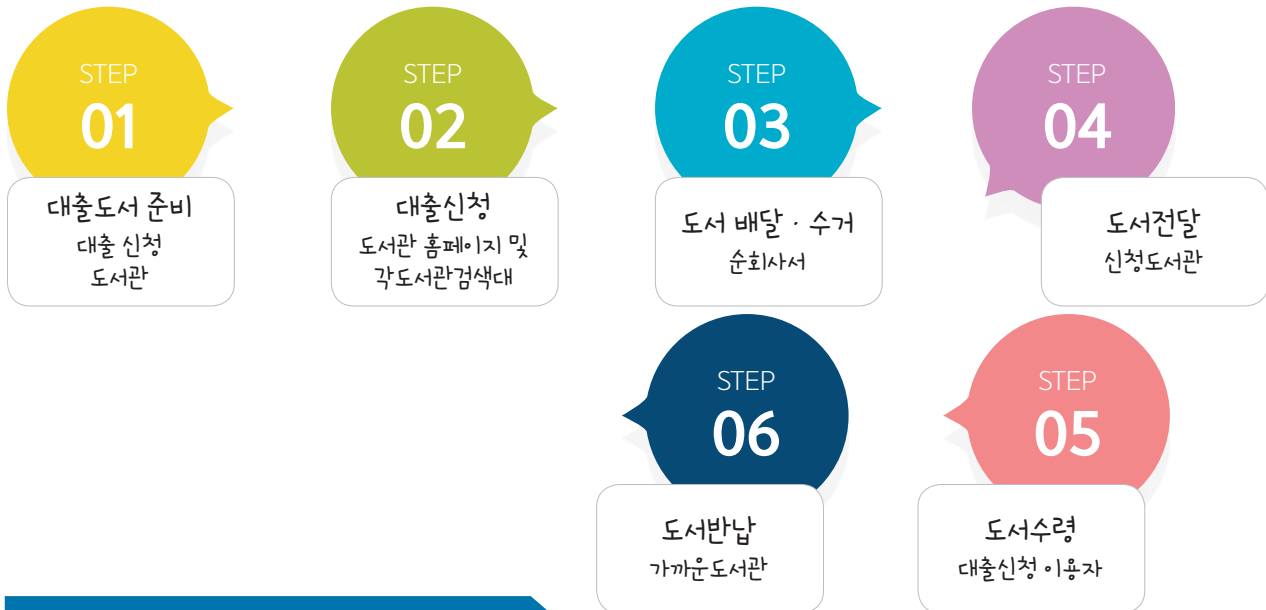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과 관내 다른도서관(작은도서관 2개소)의 책을 가장 가까운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 이용자격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대출회원 중 “정상회원” (* 대출정지, 대출권수 초과, 연체자 등 신청 불가)
- 신청권수 : 1인 3권 이내(총 대출 권수에 포함)
- 대상자료 : 도서관 소장자료 중 대출 가능 자료만 신청가능
* 제외자료 : 수령도서관의 소장 도서, 비도서, 부록(CD, 책자), 참고자료

- 대출기간 : 14일(대출 받을 도서관에서 실제 대출한 일자로부터 14일)
- 대출시간 : 평일 도서관 이용시간 내 대출 가능(※ 주말, 휴관일 제외)
- 대출제한
 - 요청 도서관에 자료가 도착한 날로부터 3일동안 대출이 가능함
 - 기한내 대출하지 않을 경우 소장(제공)도서관으로 자동복귀 처리되며, 미대출로 인한 자동복귀가 3회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게 됩니다
- 반납장소 : 3개소(한마음도서관, 가조면작은도서관, 글벗나래도서관)
- 처리요일 : 가조면작은도서관 → 수요일 / 글벗나래도서관 → 수요일

 이용절차 : 회원구분에 따라 책이음 회원 등록절차 운영



책바다 (국가상호대차 서비스)

 책바다란?

- 내가 가입한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른 도서관 자료를 가입 도서관으로 배달해주는 국가상호대차 서비스입니다

 책바다 통합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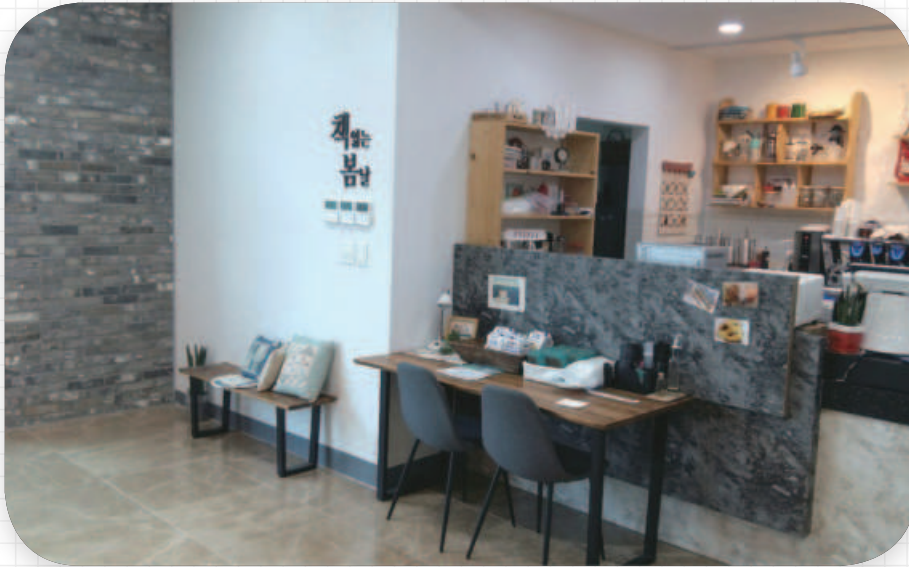
- 책바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l.go.kr/nill/>

 책바다 상호대차서비스 대상 자료의 범위

-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자료관리규정(대출규정)에 의거, 관외대출이 가능한 자료
- 학위논문, 잡지, 학회지 등 연속간행물 제외
- 비도서, 딸림자료 제공 여부는 제공도서관에서 판단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는 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신청 가능

2019, 변화하는 한마음도서관

어디에나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열린 행복 도서관



※ 참고사진: 경남대표도서관, 김해 율하도서관 등

첫째, 2019년 문화시설확충 생활 SOC 사업

노후 공공도서관을 개방형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 친화적 도서관 서비스 제공하는 **문화시설확충 생활 SOC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서관 1층 로비, 정기간행물실, 디지털실 및 점자자료실을 축소·통합하여 휴식과 독서를 겸할 수 있는 북카페를 조성합니다. 편안한 조명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비치된 책을 읽고, 첨단 IT기기로 세상을 읽기도 합니다. 과연 한마음도서관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과연 한마음도서관은
어떠한 모습으로...



둘째, 2019년 U-도서관 서비스 지원 구축 사업

자율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시간 외에도 24시간 자유롭게 도서 대출·반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U-도서관 서비스를 2016년 공모사업 시작 후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 설치 예정 장소 : 군청 및 보건소 주변

※ 참고 : U-도서관 부스 설치 모습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을 위해 냉난방기를 최신 모델로 교체하고, 도서관 내에서 자유롭게 공공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가(GIGA)급 와이파이(WIFI)망을 구축하였습니다. 1층 로비에 무인복합기를 설치, 도서관이 열려있는 시간에는 언제나 인쇄 및 스캔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층 자유열람실에는 노트북 등 IT기기 사용의 편의 향상을 위해 책상마다 충전용 콘센트를 설치하였습니다.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이제 도서관에서 무료로 공공WiFi 사용하세요!

공공와이파이 Free
GC_Library

공공장소 무료 WiFi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1.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주변 Wi-Fi 신호를 검색
2. 'GC_Library'를 선택하고 웹브라우저 실행 (단말기의 기본브라우저 사용권장)
 - 기존 말 GC_Library와 구별 (대문자 소문자)
 - 도서관 내 1층에서 3층까지 가능

공동보존서고 협정 체결

『경남대표도서관과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은 지역 장서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 도민에게 제공하고, 지역도서관의 서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공동보존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마음도서관 도서 4,400여권을 경남대표도서관으로 이관한 이번 협정으로, 한마음도서관은 이용자 희망도서 비치 위한 서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 나눔 행복 더하기

개인 및 단체로부터 도서를 기증 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함으로써 행복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매월 세 번째 토요일 (09:30 ~ 16:00) 도서관 1층 로비에 서 권당 1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기증받은 도서 중 2,152권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2,152,000원을 '거창군 장학회'에 기부하여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였습니다.

맘(MOM)편한 행복 도서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및 영아 양육자의 독서기회 증대를 위해, 맘(MOM)편한 도서배달 서비스를 2019년도부터 새로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맘(MOM)회원 신청
: 도서관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 이용신청 :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이용대상
: 임신 7개월~생후 12개월(만 1년 되는 달의 말일)
-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
책 읽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책 읽는 가족은 아름답습니다.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도서관은 아름답습니다.
”

1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데스크 직원에게
신분증 제시

구비서류

14세 이상	14세 미만	거창군내 재직/재학 중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보호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생증) 제시

※경상남도 거주자가 아닐 경우 관내 소재의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지참

2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
PC에서 본인인증 및 정보 입력

3

본인인증
(휴대전화 또는 i-pin 본인명의)

공공 아이핀 발급 방법

- ① 공인인증서
- ② 주민등록확인시스템
- ③ 읍/면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등 3가지 본인인증 수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단 14세 미만 아동은 아이핀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동반(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4

데스크에서 추가
회원정보 입력

5

회원증발급

책이음 회원 가입

- ▶ 가입방법
- 기존(타지역) 책이음 카드와 신분증 지참
 - 본인인증 및 정보 수정 후 카드발급

도서관 이용안내

이용시간

구분	어린이/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자유열람실(3층)
평일	09:00 ~ 18:00	09:00 ~ 22:00	08:00~22:00
토/일요일	09:00 ~ 17:00	09:00 ~ 17:00	08:00~22:00
휴관일	휴실		09:00~18:00

도서 대출/반납

- 대출권수 : 1인 5권
- 대출기간 : 14일(반납예정일 이내 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가능)
- 연체시 :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
- 참고사항
 - 장기연체(7일 이상 연체) 3회 시 6개월 추가 정지
 - 동일 도서의 재대출은 7일 이후에 가능(반납 당일 재대출 불가)
 - 반납연기는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940-8470)로 요청 가능
 - 도서 분실 및 훼손 시 동일자료로 변상

도서야간대출

- 신청시간 : 09:00 ~ 17:00(자료실 운영 시간내)
- 대출시간 : 18:00 ~ 22:00
- 대출장소 : 평일(2층 종합자료실) / 주말(행정실)
- 신청방법
 - 자료 소장 및 대출가능 여부 확인
 - 각 자료실로 전화신청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 수령 시 한마음도서관 회원카드 확인 후 대출

예약도서 신청

- 관외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반납 시 우선 순위로 도서 대출 가능
- 예약신청 → 예약도서 반납 시 SMS 발송 → 문자수신 후 3일 이내 대출 (미대출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발행 : 거창군평생교육센터
발행일 : 2018년 12월 30일
주소 : (501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6길 11
전화 : 055-940-8470
<http://library.geochang.go.kr>